

전기문화의 요람 전우문화사



취재·정리/홍보 과

나날이 발전해 가는 기술시대에 부응하여 전기업계도 신속한 선진기술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가 긴요하게 되었다.

이에 전기기술인들이 기술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부담없이 볼 수 있는 전기기술의 종합해설지 「월간전기」를 발행, 전기계에 호평을 받고 있는 전우문화사(대표 : 노정현)를 찾아가 보았다.

전기제조업자들의 총본산인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 2동 전기조합회관 4층에 자리한 전우문화사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사진식자기(전산, 수동)의 글자 찍어 내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리고, 기획부, 편집부 직원들은 보다 양질의 책을 만들어 내느라 여념이 없고, 영업부 직원들은 고객과 전화 통화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 '88년부터 「월간전기」 발행... 전기기술인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

전우문화사가 전기계와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66년 「전기총람」을 발간하면서 부터이다.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전기계는 아직 유년기를 벗어나지 못한 시절이었지요. 예를 들면 당시 우리나라 발전시설이 76만 9천 kW에 불과한 시대인 만큼 현재의 2천 4백만 kW에 비하면 격세지감이

듭니다. 더욱이 전기산업계도 수공업에 의한 조립형태와 수리업이 고작이었고 주요기기는 수입에 의존하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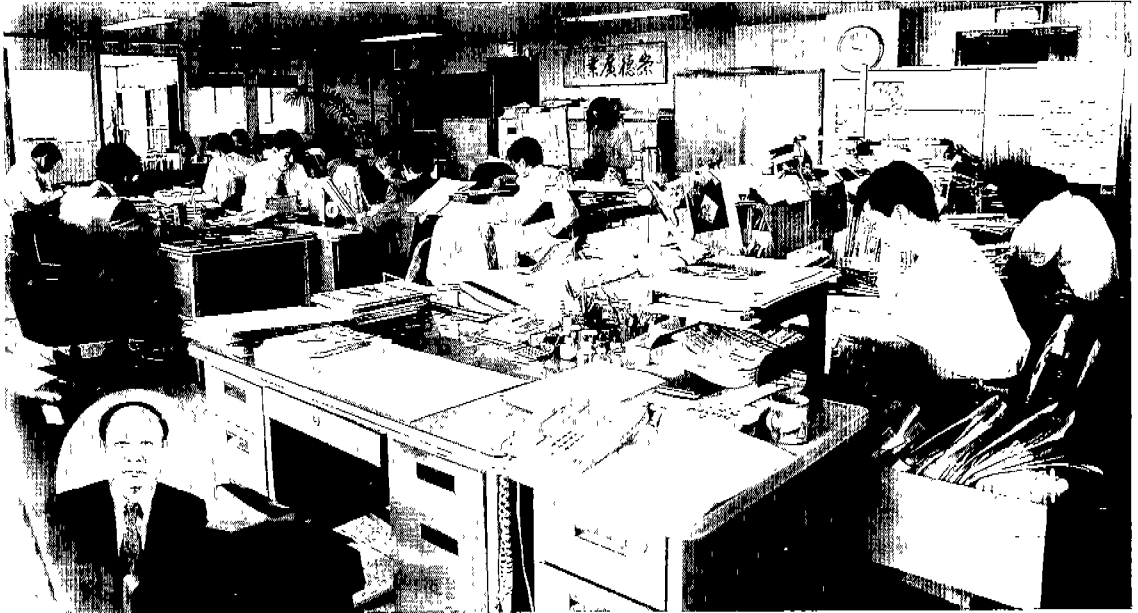
당시 한국전기공사협회가 발행하는 한국전기신문사에서 10여년이 넘게 전기계와 인연을 함께해오다 지난 '78년 전우문화사를 인수, 본격적으로 전기계에 발을 들여놓은 노사장의 말이다.

「전기총람」은 올 7월이면 통권 27호가 발간되는데, 4반세기를 지나면서 축적된 많은 자료와 업계의 요구를 하나하나 수렴하고 있다.

또한 각계 각층의 전기분야 정보자료를 직접 조사 정리, 제조업체 및 판매, 대리점 그리고 수요자와 발주처를 연결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적인 유통 자료집으로 전기설비와 관련된 곳이면 어느 곳이나 비치되어 있다.

특히 전우문화사 노정현 사장은 '88년 5월 1일 우리나라 전기계에 선진기술을 보급하고 전기문화 창달에 기여한다는 기치아래 「월간전기」를 창간하기에 이른다.

“「월간전기」는 기술현장에서 꼭 필요한 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국의 전기기술자 특히 전기설비 안전관리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일의 전기기술잡지지요.”



▲ 사무실 전경 (왼내는 노정현사장)

5년의 길지않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전기전문기술 자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다지고 있는 「월간전기」 발행인인 노사장의 말이다.

또한 '90년도에는 일본 덴키쇼잉(전기서원)과 출판계휴를 맺고 최신 전기기술정보를 수록 보급하고 있는 전우문화사는 「월간전기」외에 전기기술서적을 비롯하여 전기업체에 수첩과 카탈로그를 제작, 공급하여 그 인지도를 높혀가고 있다.

전국의 유명서점에 가면 월간전기, 전기총람 및 전기기술서적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우문화사는 전기제조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부산, 인천, 대구에 지사를 설치하여 그곳의 전기기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기계에 필요한 정보 전달에 최선을 다할 터

성실, 책임, 화합을 전사원의 지표로 삼고 전기인의 벗으로 전기기술인 및 전기업체와 함께하면서 전기문화를 꽃피우고 있는 30여명의 전우가족은 일사불란하게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는 노사장이 직원들을 아끼는 한편 직원들의 애

로사항을 듣고 개선해 주며 무엇보다도 신의를 소중히 여기는 도덕성에 바탕을 둔 경영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어진다.

현재 한국잡지협회 이사 및 연구위원직 이외에도 잡지협회 회원간의 친목과 정보교류를 위한 과학기술잡지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노사장은 관련업계에서도 신망이 두텁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노사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83년과 '85년 2회에 걸쳐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주최한 「국제전기기자재전시회」에서 국내유수의 전기제조업체 참가 유치에 주역으로 활약한 결과 동전시회 기간중 10만 인파가 몰려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데 보람과 기쁨으로 기억된다고 한다.

“앞으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더욱 전기계에 필요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전기기술서적을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월간전기」는 선진기술정보의 신속한 전달과 전기기술인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는 정보 매체로서의 사명을 차질없이 수행해 갈 것입니다.”

조용조용히 말하지만 확신에 찬 노사장의 모습에서 전우문화사의 밝은 앞날을 기대해 본다.